



# 시드니 반어적 표현을 배우다

글 Penny M. Pexman, PhD

그림 Lauryn Bitterman

번역 Julia Kim

# 펴내는 글

반어적 표현(혹은 비꼬기)은 농담을 하거나 놀리기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상언어의 한 유형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 사용되죠. 하지만, 아이들은 사람들이 비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연구를 통해 왜 반어적 표현이 어려운지 찾아냈고,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쉽게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배울 수 있게 이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어적 표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4-7 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색칠할 수 있도록 이야기 페이지에 흑백 삽화를 사용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께서는 반어적 표현이 나오는 부분은 비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롭게 당신이 듣거나 사용한 비꼬기의 다른 표현도 아이들과 얘기해 보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월요일에 시드니방은 정말 어지러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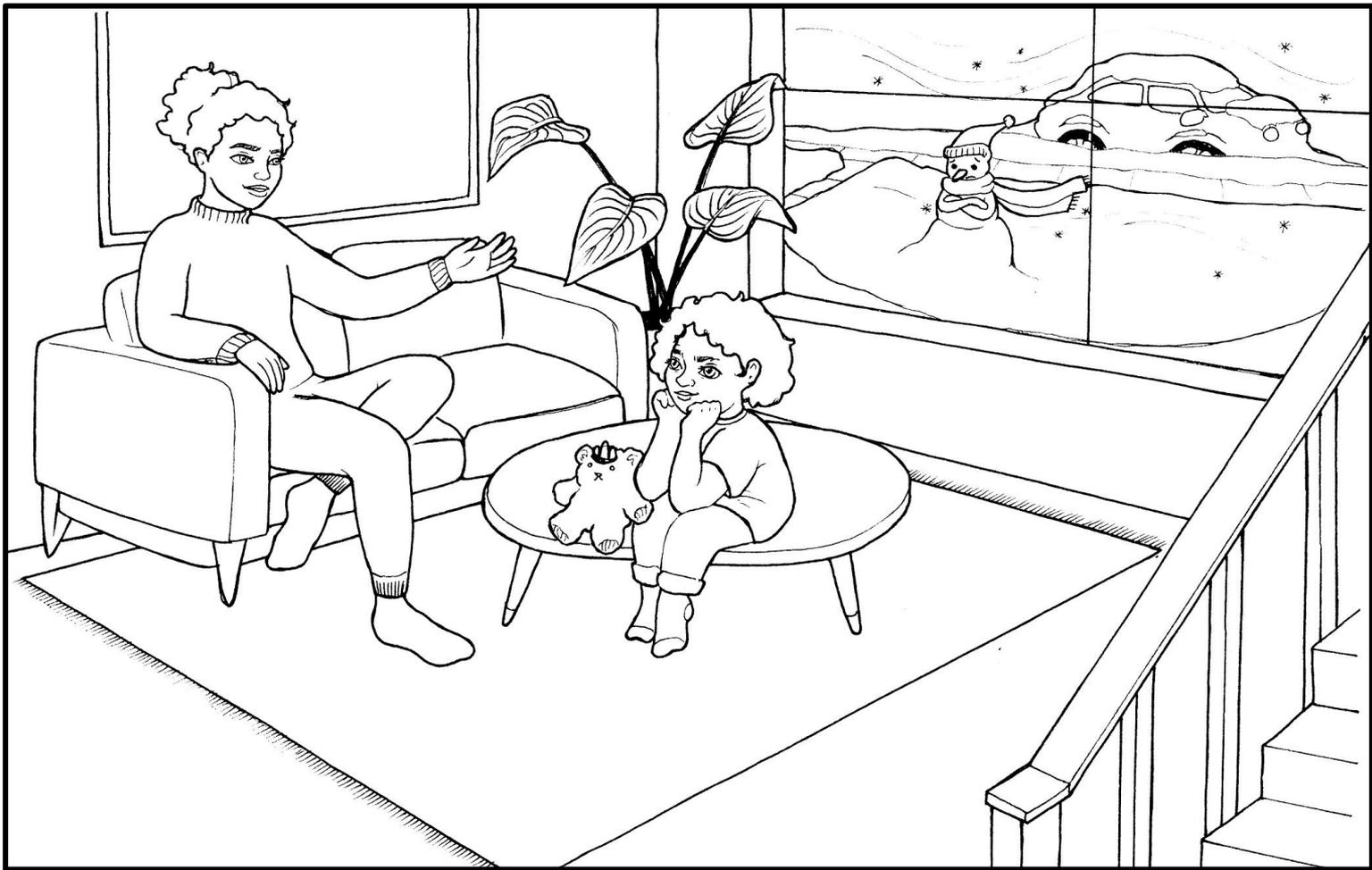
시드니 오빠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와. 방이 정~말 깨끗하네” 라고 말했어.

“응?” 어리둥절해진 시드니가 오빠에게 물었어.

“비끄는거야!” 오빠가 대답했어.

시드니는 어지러운 방을 나가 아래층에 있는 엄마한테 갔어.



“엄마, 비꼬는게 뭐예요?” 시드니가 물었어.

“비꼬는 건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반대로 이야기 하는 거야” 시드니 엄마가 대답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밖에 날씨가 너무 안좋고 폭설이 내릴 때, ‘날씨 한번 좋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엄마가 얘기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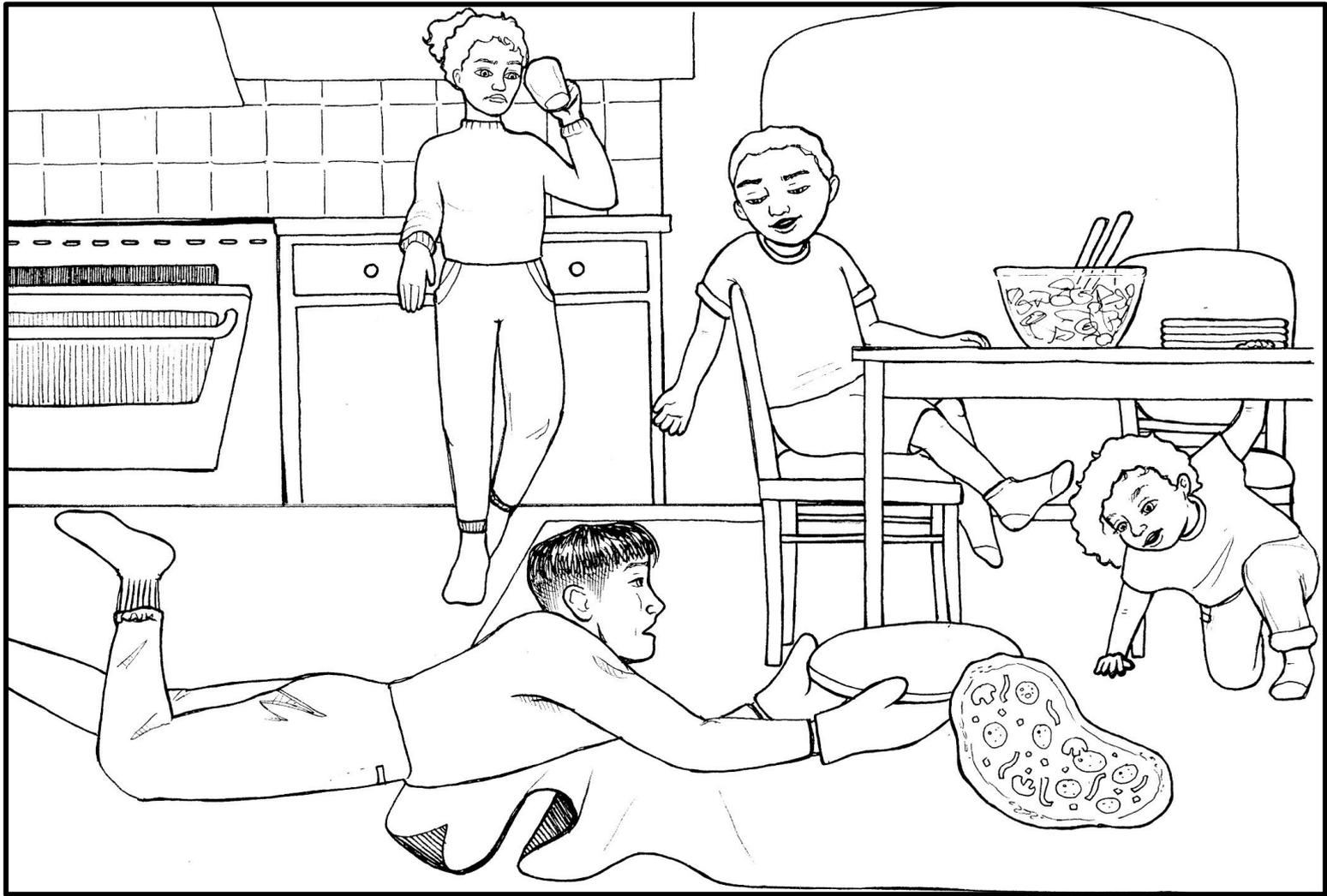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드니가 물었어.

“그냥 웃기려고. 농담하는 거지.” 엄마가 대답했어.

“흠. 신기하다.” 시드니가 말했어.



화요일엔 시드니 아빠가 저녁으로 피자를 만들었어.  
시드니는 아빠가 만든 피자를 참 좋아했지. 항상 맛있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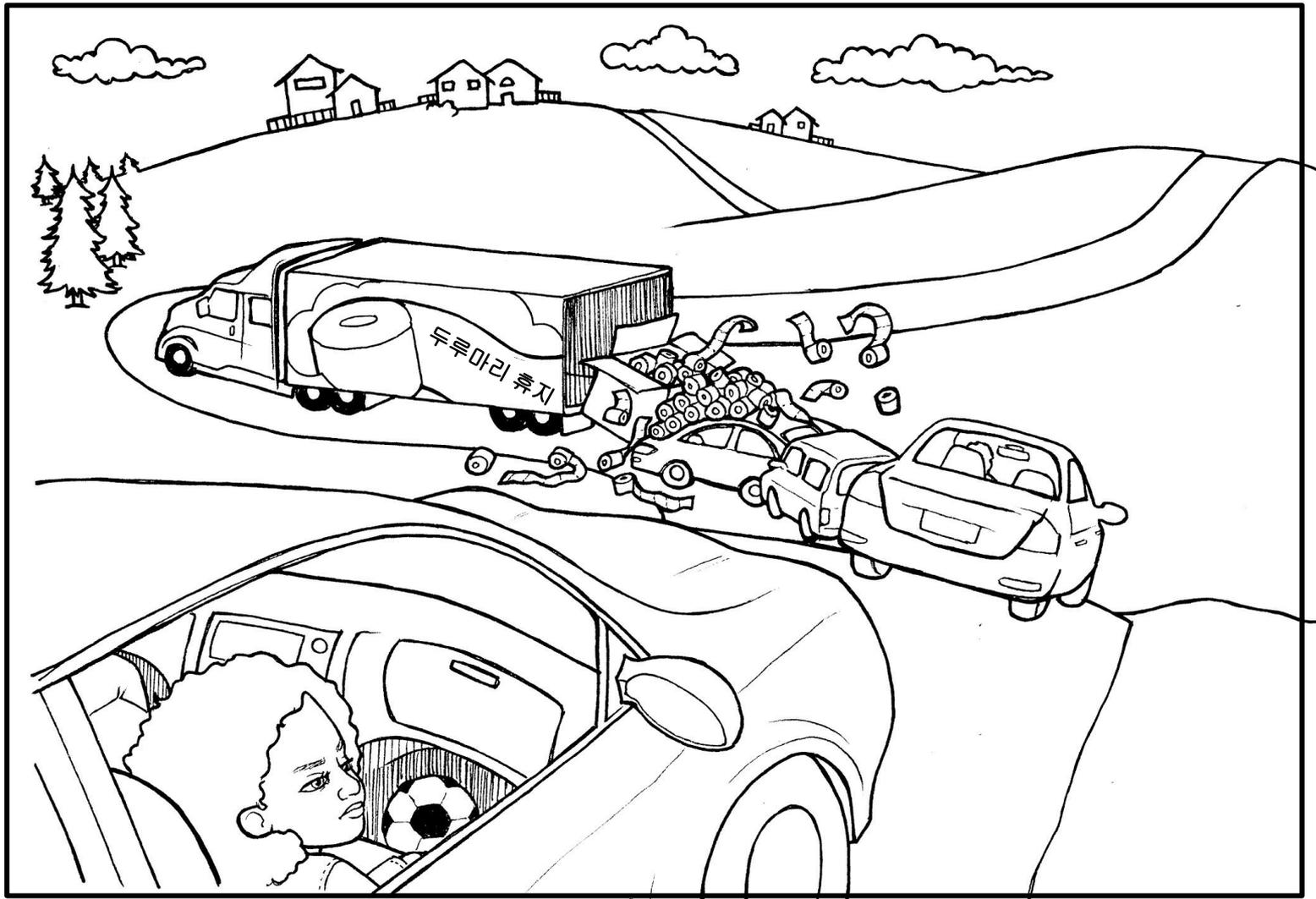
시드니 아빠가 피자를 오븐에서 꺼낼 때 갈래에 걸려 넘어져서 피자가 철판퍼덕!하고 바닥에 떨어졌지.

시드니 오빠가 웃으면서 말했어 “아빠, 깔끔하게 잘 꺼내셨네요.”

“응?” 어리둥절해진 시드니가 오빠에게 물었어.

“비꼬는거야!” 오빠가 대답했어.

“흠. 신기하다.” 시드니가 말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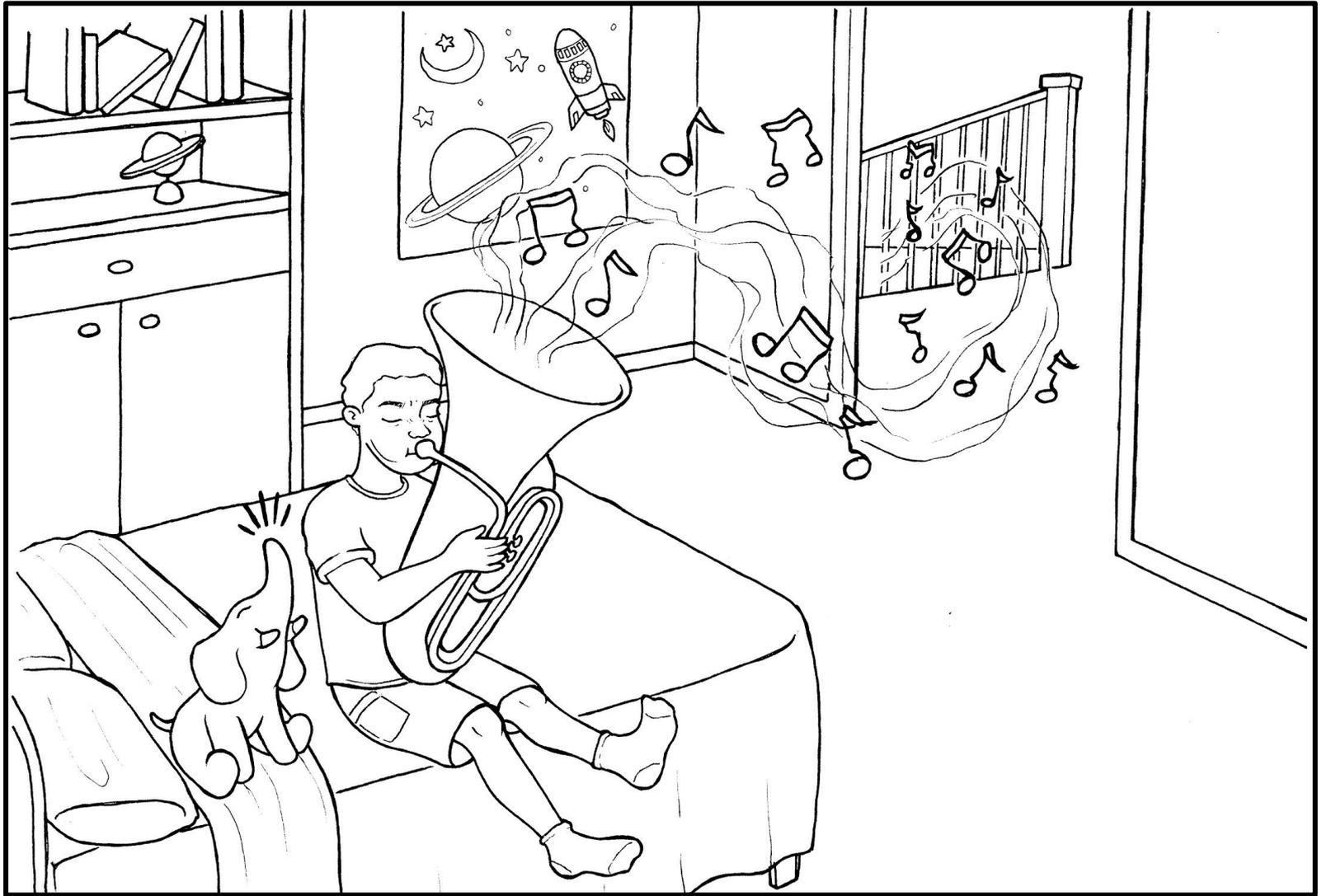
수요일엔, 엄마가 시드니를 축구장에 데려다 줬어. 앞에 있는 화물차에서 두루마리 휴지들이 떨어져서 도로를 막았지. 길이 꽉막혔어. 시드니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네.”



“네?” 시드니가 말했어. “엄마, 이건 좋은게 아니잖아요.”

“시드니, 비꼬는거야” 엄마가 대답했어.

“흠. 신기하다.” 시드니가 말했어.



목요일날, 시드니 오빠가 윗층 방 안에서 튜바를 연습하고 있었어. 튜바 소리가 꼭 코끼리 소리 같았지.



밑층 부엌에서 시드니 아빠가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소리쳤어 “음악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아들이!”

시드니는 어리둥절해졌어. 소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았거든. 시드니가 갑자기 깨달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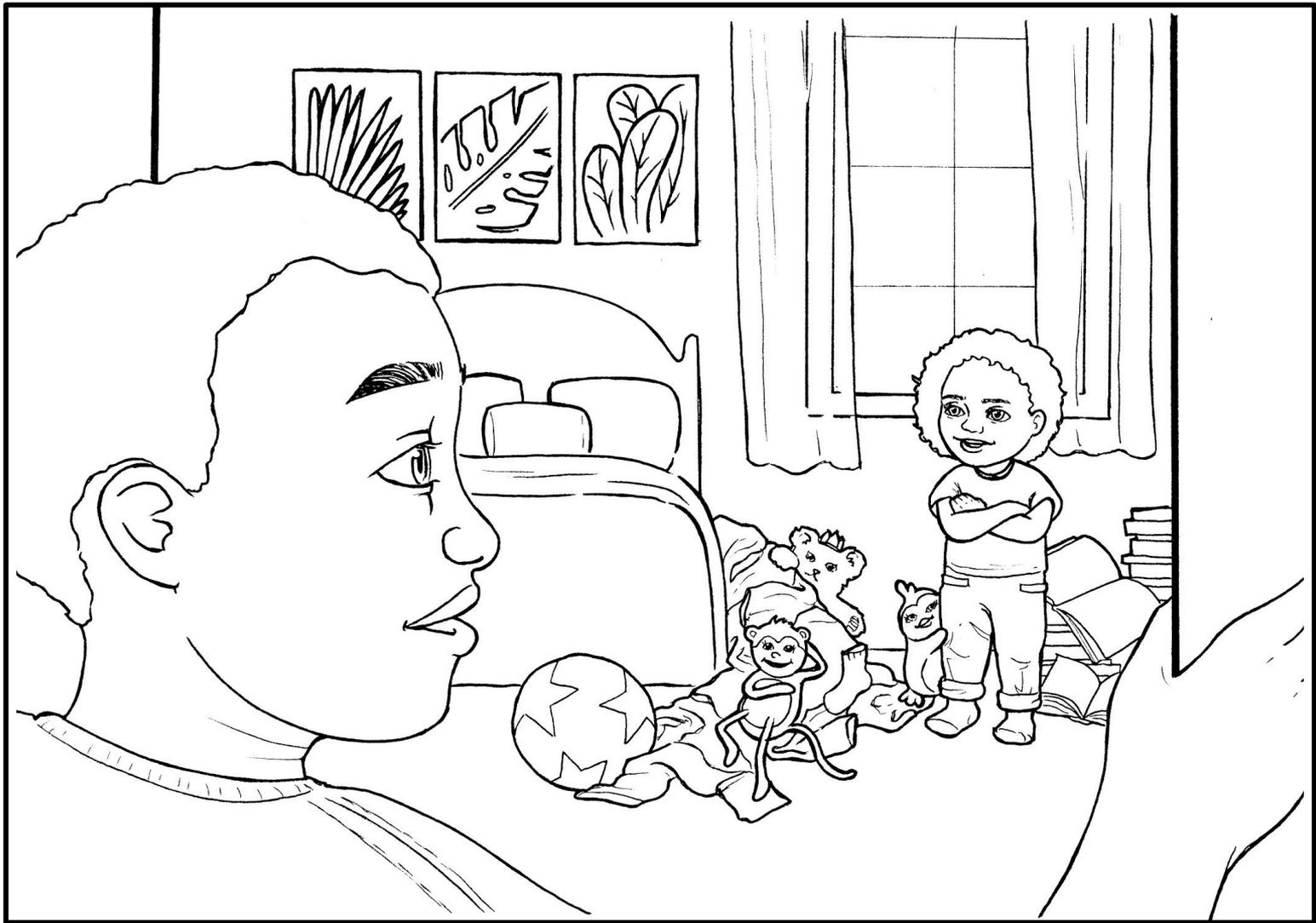
시드니가 물었어 “아빠, 비꼬는 거예요?”

“그래” 아빠는 웃으면서 대답했어.

“흠, 신기하다” 시드니가 말했어.



금요일엔, 시드니가 지저분한 자기 방을 동물원처럼 만들었어. 옷더미 위에서 원숭이들을 놀게하고, 책을 쌓아올려 펭귄들이 미끄럼틀 타게 했지. 시드니는 지저분한 방을 둘러보면서 미소지었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오빠!” 시드니가 소리쳤어. “내 방이 얼마나 깨끗한지 봐!”  
오빠가 방안을 흘끔 쳐다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응?” 하고 물었어.  
“비꼬는거야!” 시드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  
“흠. 신기하다” 오빠가 시드니 농담에 웃으며 말했어.

# 감사의 글

이 동화책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연구기관에서 지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구는 캘거리 대학, 랭귀지 프로세싱 연구실(Language Processing Lab)에서 이뤄졌습니다. 캘거리 아이연구그룹 (ChiLD Research Group)을 통해 연구를 참가해주신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책의 이야기는 반어적 표현 훈련 연구논문에서 쓰였던 걸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이 연구를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신 부모님이나 보호자께서는 다음에 표시되어 있는 반어적 표현 훈련 논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ate Lee, David Sidhu, and Penny Pexman published in the *Canadia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e, K., Sidhu, D. M., & Pexman, P. M. (2021). Teaching sarcasm: Evaluating metapragmatic training for typically-developing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ttps://psycnet.apa.org/doi/10.1037/cep0000228>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of Canada

Conseil de recherches en  
sciences humaines du Canada

Canada